

이젠, 가치투자다... '전설의 3인방'이 다시 움직인다

가치투자 3인방의 新펀드 주목

3년간 영업익 흑자 '주주행복 펀드'
5년 여유 투자자위한 '더블답밸류'
아시아 10개국 '슈퍼아시아 펀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자 가치투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가치투자란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기초로 투자하는 전략이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기업가치를 따라갈 것이란 기대로 하락장 혹은 변동성이 큰 장에서 유효한 전략으로 통한다. 그리고 국내 대표 가치투자자로 꼽히는 전문가들은 하락장을 기회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투자상품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채원 사장이 이끄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지난 4일 '주주행복펀드'를 출시했다. 펀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가치 향상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인 반면 최근 3년간 영업익 흑자를 낸 기업 중 주당순이익(EPS), 배당성향과 부채·차입금 비율 등 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최종 투자 종목을 선정한다.

그리고 기관투자자로서 현금성 자산을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슈퍼아시아 펀드,
미래기업 환경에 적합한
기업에 투자

과도하게 쌓고 있는 기업이나 잘못된 투자와 운영을 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근 지배구조 리스크, 낮은 배당성향이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해온 만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소액주주의 장기 투자 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운용 대표



주주행복 펀드,
배당성향이나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울러 국민연금이 7월 말 스튜어디스 펀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과 함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펀드의 지향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채원 한투밸류운용 사장은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는 일본에서 비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



더블답밸류 펀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종목 중심으로 투자

한 컨셉트의 투자로 크게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다"며 "이제 한국도 정부 정책에 따라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이나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펀드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자산운용도 새로운 펀드를 준비 중이다. 가치투자 하우스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새로운 펀드에도 가치투자의

철학을 담았다. 쉽게 말해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크게 하락해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 담은 펀드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더블답밸류'(가칭)로 이름을 정하고 구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사장은 "5년 정도 투자 여유를 갖고 있는 투자자를 위한 공모상품"이라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을 위주로 투자해 벤치마크 지수를 크게 상회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가치투자 업계의 '현자'로 통하는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역시 내년 1월을 목표로 새로운 상품 출시 계획을 밝혔다. 한국·중국·일본을 뺀 나머지 아시아 10개국에 투자하는 '슈퍼아시아 펀드'다.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기업 중 미래 기업 환경에 적합한 기업에 투자하는 그의 '가치투자 철학'을 고스란히 담았다. 10년 만에 내놓는 액티브펀드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은 "한 국가에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국가에 분산투자 하는 전략으로 투자 위험도를 낮췄다"며 "인공지능(AI) 펀드 라인업도 추가해 안정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metrosec.co.kr

LG전자, 유럽 스마트폰 업체 '위코' 제조

LTE 표준특허 침해 대응

LG전자가 유럽 스마트폰 제조업체 위코(Wiko)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9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에 위코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위코가 LG전자의 롬에 불루선(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다.

LG전자가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 미 스마트폰 제조업체 BLU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위코는 지난해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1000만대 이상 판매했다.

LG전자는 2015년 위코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

을 요구했으나 위코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들의 부당한 자사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HUG의 분양보증, 독점 말고 나눠야"

>> 1면 '로또청약 부추기는 HUG'서 계속

일단 청약을 통해 당첨만 되면 인근 시세 만큼 가격이 뛰어나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로또'라는 단어가 붙었다.

올해에만 강남, 강북, 과천 등에서 로또 청약 단지가 나와 청약 과열, 청약 양극화 현상을 부추겼다. 실제로 최근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분양한 '미사역 파라곤'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5억원 가량 저렴해 8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투기성 청약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거나 분양가족을 늘리는 등 불법·편법을 동원하는 투기성 청약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이 같은 현상이 잇따르자 실수요자의 소외감만 더 커지는 모양새다. A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HUG의 분양 보증

제도에 대해 한 누리꾼들은 "HUG의 분양 보증 심사를 통과하려면 주변 시세의 3분의 2 가격으로 분양해야 된다"며 "혁(HUG)소리 나는 강패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HUG가 로또를 만들어 주고 있다"며 "오히려 청약, 분양에 목매게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 보증 제도는 30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도입된 것"이라며 "HUG가 분양 가격을 갖고 논한다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매년 건설사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HUG가 분양 보증을 독점할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여러 회사에서 나눠하고, 관련 제도도 좀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채신희 기자 csh9101@

이낙연 "지역관광·해양레저 육성... 경제동력 살려야"

국가관광 전략회의

243개 지자체장 등과 영상회의

정부가 고용지표 악화, 지역기반 산업 침체 등 지역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광육성'을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관광객의 '서울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공항·항만·KTX역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국제적 지역관광 거점을 육성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교육부,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국무조정실장,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43개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영상회의로 연결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관광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강원도'와 '여수'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 말 발표된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관광활성화 방안과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지자체장들께 개별히 말씀드리다. 관광을 살리자"며 "국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큰 안건으로 모색된 지역관광육성에 대해 정부는 우선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제적인 지역관광 거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 유일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인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DMZ 문화관광축제, 걷기여행길 조성 등을 통해 평화관광지로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지 명성을 활용한 올림픽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 등을 통해 강원지역을 '겨울·스포츠 관광 거점'으로 조성키로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제55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8월 22일~9월 13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9월 2일(일), 9월 9일(일), 9월 11일(화)

김대영선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